

코, 안젤라 게오르규, 디아나 담라우가 차례로 한국 무대에 서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제작비용이 워낙 높은 클래식 공연 특성상 청탁금지법으로 기업 협찬이 줄면 대형 클래식 공연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계속됐다. 실제 한국메세나협회가 3~5월 4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으로 2016년 하반기 메세나 활동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23.8%가 “관련 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공연 기획사들은 제작비를 낮추고 유료 티켓 판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다. 일반 관객의 지갑을 열기 위해 대중적 레퍼토리(연주곡)를 선정하거나 SNS를 활용한 관객과의 직접 소통 확대 등이 고려됐다. 특히 핀란드 명문 악단 라티 심포니의 경우 티켓 값을 최고 4만원대로 책정해 이목을 끌었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대형 오케스트라 공연이 이 정도 가격으로 나온 것은 드문 일이다.

## 연극·뮤지컬

### ■ 개요

2016년 불거진 ‘블랙리스트’ 파문은 2017년에도 공연계, 특히 연극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블랙리스트의 실상이 드러나며 분노한 연극인들은 연극인회의 등을 결성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고도고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콘텐츠 금지령)은 한동안 공연 시장에도 찬바람을 불러왔다.

관객이 적극적으로 공연에 참여하는 ‘이머시브’ 공연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했고, 뮤지컬 ‘켓츠’는 누적 관객 200만 명을 돌파했다.

50여 년간 연극 무대를 중심으로 스크린,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선 굵은 연기를 선보였던 배우 윤소정 씨가 6월 세상을 떠났고, 12월에는 ‘1세대 무대미술가’ 이병복 씨가 별세했다.

### ■ 연극인들, 블랙리스트에 적극적인 발언 나서

연극인들은 1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극장인 ‘광장극장 블랙텐트’를 세우고 두 달



▲ 4월 18일 밤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블랙타파) 발족식에서 공연이 열리고 있다. 이날 극단 등 108 곳의 연극 관련 단체와 5백여 명의 연극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간 운영했다. 1월 10일 개관한 블랙텐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기 전날인 3월 9일까지 총 72건의 공연이 이뤄졌다.

연극인들은 또 블랙리스트 문제 진상규명과 문화예술제도의 공공성 확립을 요구하는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 회의’(블랙타파)를 결성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사과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는 등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했다.

### ■ 세월호 참사·메르스·청탁금지법 이어 한한령으로 타격

2015년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가적 애도 분위기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2017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은 공연예술계는 2017년 상반기에 한한령으로 다시 타격을 입었다.

대표적인 관광공연 상품이었던 난버벌(비언어) 퍼포먼스 ‘난타’는 국내 전용관 중 한 곳인 충정로 극장의 운영을 4월 이후 중단했다. 중국 단체 관광객 위주로 운영됐던 충정로 극장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2017년 4월부터 임시 휴관 상태였다가 결국 폐관을 결정했다.

미술 난버벌 퍼포먼스 ‘오리지널 드로잉쇼’도 한한령으로 운영을 잠정 중단했고 타악 퍼포먼스 ‘드럼캣’도 2월 말 공연을 종료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스터 액트’에 동양인 최초로 캐스팅된 한국 뮤지컬 배우 김소향이 아시아 투어 중 중국 공연에서 빠지는 일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6월 창작 뮤지컬 ‘빨래’가 중국에서 공연되는 등 한한령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 ■ 뮤지컬 ‘켓츠’ 관객 200만명 돌파··이머시브 공연 새로운 트렌드

뮤지컬 ‘켓츠’가 12월 한국 뮤지컬 사상 첫 200만 관객 돌파 기록을 세웠다. 2007년 3월 뮤지컬 ‘명성황후’가 100만 관객을 돌파한 이후 10년 만에 200만 관객 기록을 세운 것이다. 켓츠의 인기 비결은 성별이나 연령대,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관객층 등이 꼽힌다.

관객이 공연의 일부로 참여하는 ‘이머시브’(Immersive) 공연도 2017년 공연 시장의 특징 중 하나였다. 서울예술단의 ‘꾼빠이, 이상’, 정해진 대본 없이 관객들이 현장에서 정한 제목과 주인공, 상황 등으로 매회 다른 구조의 이야기를 만드는 뮤지컬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 관객들이 극장을 탐방하며 즉석 연기를 하는 관객참여형 연극 ‘내일 공연인데 어떡하지’ 등이 이머시브 공연으로 주목받았다.

공연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임금 미지급도 다시 논란이 됐다. 6월에는 뮤지컬 ‘햄릿’이 임금 체납으로 인한 스태프와의 갈등으로 두 차례나 공연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전 공연에서 본 손실을 다음 공연에서 메우거나 다음 공연을 담보로 이전 공연에 투자를 받는 ‘돌려막기’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 ■ 연극배우 윤소정 · 1세대 무대미술가 이병복 별세

연극 무대에서 주로 활동해온 배우 윤소정 씨가 6월 16일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3세.

1962년 TBS 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그녀는 50여 년간 ‘초분’, ‘따라지의 향연’, ‘신의 아그네스’, ‘잘자요 엄마’ 등 수많은 연극에 출연했다. ‘올가미’, ‘이재수의 난’,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 영화와 ‘대망’, ‘잘했군 잘했어’, ‘내 딸 꽃님이’, ‘청담동 앨리스’, ‘결혼의 여신’, ‘폭풍의 여자’ 등 드라마에도 다수 출연했다. 특히 1997년 올가미에서는 아들에게 집착하는 시어머니 역으로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사전제작으로 촬영을 모두 마친 TV 드라마 ‘엽기적인 그녀’가 유작이 됐다. 동아연극상과 대중상영화제 여우조연상, 이해랑 연극상, 대한민국연극대상 연기상 등을 받았다. 남편 오현경과 딸 오지혜 모두 배우인 배우 가족으로도 유명했다.

‘1세대 무대미술가’ 이병복 씨가 12월 29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1947년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기념 공연인 ‘윈더미아 부인의 부채’에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무대와 인연을 맺었다.

결혼 후 1957년 프랑스 파리 유학을 떠나 조각과 의상을 공부했고, 귀국 후 1966년 연출가 김정옥과 함께 극단 자유를 창단했다.

이후 2006년까지 40여 년간 극단을 이끌면서 수백여 편의 작품에서 의상과 무대 미술 전반을 담당하며 ‘연극계 대모’로 불렸다. 한국연극계에 무대미술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했고 소도구를 무대미술의 개념으로 확장하기도 하면서 무대미술과 의상을 하나의 예술로 끌어올린 ‘1세대 무대미술가’로도 평가받았다.

동아연극상과 백상예술대상 무대미술상, 동랑예술상 등을 받았다. ‘따라지의 향연’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아가씨 길들이기’, ‘도적들의 무도회’, ‘무엇이 될고하니’, ‘피의 결혼’, ‘바람부는 날에도 꽃은 피네’, ‘웃고-살’ 등 대표작을 남겼다.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계승자로 평가받는 극작가 겸 연출가인 윤조병 극단하명세 예술감독이 10월 11일 7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참새와 기관차’, ‘농토’ 등의 작품을 남겼고 대한민국 연극제 대상, 대한민국연극제 희곡상, 전국연극제 대상 등을 받았다.

## 무용

### ■ 개요

2017년 무용계는 국립 무용 단체들이 스타 무용수 위주에서 벗어나 안무가를 길러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적잖은 성과를 냈다. 이외에 중견 무용수들의 활약, 무용계 ‘아카데미상’으로 통하는 ‘브누아 드 라 당스’ 수상자·수상작 공연 등도 주목을 받았다.

## ■ “스타 안무가 찾아요”…국립단체들, 단원들에게 안무 기회

국내 무용계는 한국 무용수들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안무가층이 빈약하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국립발레단은 2015년부터 ‘국립발레단(KNB) 무브먼트’ 시리즈를 운영하며 크고 작은 성과를 내고 있다.

‘KNB 무브먼트’ 시리즈는 국립발레단 소속 무용수들이 안무가로서 춤을 만들고 공연을 기획하는 프로젝트다. 첫 회에서 안무작을 선보인 강효형은 무용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 안무가부문 후보에 오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국립무용단도 8월부터 단원들에게 소품 안무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인 ‘넥스트 스텝’을 시작했다. 단원들이 한국무용 기반의 차세대 안무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작품 개발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국내외 안무가 초청 프로그램인 ‘픽업 스테이지’를 운영하는 국립현대무용단도 2018년 더 장기적인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중견 무용수 활약…스타 발레 부부 황혜민-엄재용 은퇴

2017년은 중견 무용수들의 활동상이 주목받은 한해였다.

스페인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세연이 안무가로 한국 무대에 데뷔한 데 이어 낭만 발레 ‘자젤’ 전막 공연으로 관객을 만났다.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출신 김주원은 연극 ‘라빠르트 망’에 출연하며 활동폭을 또 한 번 넓혔다. 국립발레단의 황금 콤비로 명성을 누렸던 김용걸과 김지영은 크고 작은 무대에서 견고한 파트너십을 과시했다.

무용 팬들이 아쉬워할 만한 이별도 있었다. 유니버설발레단(UBC)의 간판스타 무용수 황혜민과 엄재용 부부는 드라마 발레 ‘오네긴’을 끝으로 11월 동반 은퇴했다. 엄재용과 황혜민은 각각 2000년과 2002년 UBC에 입단한 이후 지난 15년간 뛰어난 파트너십으로 발레 팬들의 큰 사랑과 신뢰를 받아온 무용수들이다.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이들은 2012년 부부의 연을 맺으며 ‘최초의 현역 수석무용수 부부’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떠나고 싶었다.”고 말한 두 사람은 2세 계획 등 ‘무용수 이후의 삶’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은퇴 결정을 내렸다. 11월 26일 이들의 마지막 공연 날 발레 팬 2천여 명은 UBC에서 미리 준비한 ‘발레해 줘서 고마워’와 붉은색 하트가 인쇄된 플래카드를 흔들며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 ■ ‘브누아 드 라 당스’ 수상자의 품격…평창동계올림픽도 지원 사격

관객과 평단의 지지를 고루 받은 화제작들도 이어졌다. 특히 ‘브누아 드 라 당스’ 수상자와 수상작들이 품격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